

제일모직, 합성수지 중국공장 완공

컴파운딩 능력 ABS 1만톤에 EP 6000톤 ...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

제일모직은 케미칼부문 해외 진출의 첫 거점인 중국 Tianjin에서 합성수지 컴파운딩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Tianjin 공장은 휴대폰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TV 등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컴파운딩 1만톤 및 EP(Engineering Plastics) 컴파운딩 6000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황백 사장은 “중국 Tianjin 공장은 제일모직의 케미칼 사업 패러다임을 글로벌 대응체제로 바꾸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소재시장의 중심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고부가 생산거점의 역할과 동시에 현지 완결형 수요처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상생의 파트너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준공식은 3월24일 Tianjin 서청경제개발구에 있는 텐진삼성엔지니어링플라스틱(三星高新塑料有限公司)에서 황백 사장과 왕바오디(王寶弟) 서청구 당서기, 주지아비아오(周家彪) 구청장 및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5>